



윤석민 “국내 U턴 계획 없어… 빅리그 꼭 간다”

“MLB 진출 아직 진행중…세부 조율 남아
국내 구단 러브콜 있지만 내 꿈은 빅리거”

“국내 유턴? 내 꿈은 이곳에 있다!” 투수 윤석민(전 KIA)이 빅리거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어간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했다. 그런데 잠잠해도 너무 잠잠하다보니 윤석민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급기야 국내 유턴설 속에 구체적인 팀 명까지 거론됐다. 본의 아니게 논란의 주인공이 된 윤석민.

요란한 국내 분위기와 달리 윤석민은 “앞만 보고 있다. 다른 생각할 여유도, 필요도 없다”며 오히려 느긋했다. 윤석민은 19일 “오늘 계속 한국에서 연락들이 와서 바쁘다”고 웃으며 “미국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빅리그 진출이 내 목표이고 꿈이다. 지금 다른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앞만 보면서 내 꿈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윤석민의 미국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메이저리그의 이적시장에 ‘나비효과’를 몰고 올 일본 프로야구 라쿠텐의 투수 다나카의 거취가 불분명하고, 윤석민이 속한 보라스 사단에 추신수의 대형 계약도 남아있다. 생각보다는 긴 싸움이다. 그러나 조용히 윤석민의 미국행은 진행되고 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조율만 이뤄지면 당장이라도 고민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게 윤석민 측의 설명이다. 물론 국내유턴도 윤석민의 2014시즌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윤석민이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계산이라는 것이다. 윤석민은 “구체적인 팀을 밝힐 수는 없

지만 지난 11월 국내 구단들의 연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최고 대우를 언급하면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내 가치를 인정 받고 관심을 받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난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에서 야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민이 그러는 가장 행복한 무대는 빅리그다. 빅리그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도전이자 물음이고,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설렘이다. 우려를 샀던 어찌 상태도 이상무다. 윤석민은 “한국에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것을 이뤘고 여러 도전도 해왔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싶고 내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다. 자신도 있다”고 했다. 정체를 안정보다는 결과를 알 수 없는 도

전, 상대적인 물질보다는 절대적인 자부심이 윤석민이 추구하는 야구 인생이다. 국내 유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만둬 놔다. 윤석민은 “먹고 살 걱정을 할 만큼 돈이 아쉬운 것도 아니고 내 꿈에 충실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그의 말대로 KIA를 대표하는 선수였던 것에 비해 연봉협상에서 큰 잡음이 나오지 않은 편이었고, 자해 소동을 벌였던 2010 시즌이 끝나고는 구단에 연봉을 백지위임 하기도 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윤석민은 이번 프로야구 FA 시장의 최대어다. 안락한 곳에 최고의 보장이 약속되어 있지만 윤석민의 눈은 예측불허의 거친 빅리그에 쏠려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MLB 연봉 한국의 37배

평균 35억7천만원...일본의 9배

미국 메이저리그 올해 평균 연봉이 339만 달러(약 35억6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외신과 한국야구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국 프로야구 선수노조가 공개한 선수 연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몸값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매년 최고액을 경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5.4%나 올랐으며, 이 같은 상승폭은 2006년 이후 최고로 파악됐다. 미국 일반 노동자 임금 상승이 1.6% 수준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메이저리그 연봉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는 특히 한국의 37배, 일본의 9배에 달하는 것이다. 올해 초 한국야구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프로야구 평균 연봉은 9496만원(외국인 선수와 신인 제외)이었다. 일본 프로야구 선수노조는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올해 평균 연봉을 3734만 엔(약 3억8000만원)으로 발표한 바 있다. 뉴욕 양키스는 15년 연속 최고 연봉 구단 자리를 지켰다. 양키스의 2013년 평균 연봉은 817만 달러(약 86억원)로, 2009년 766만 달러(약 80억6000만원)를 넘어서는 최고 연봉 신기록이다. /연합뉴스



소치 가는 길목 기분 좋은 출발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기대주 노진규(안·한국체대)가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트렌티노의 트렌토 아이스 스티디움에서 열린 제26회 트렌티노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쇼트트랙 남자 1500m 파이널A에서 역주하고 있다. 노진규는 2분16초810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염천호(21·한국체대)가 2분16초852를 기록해 은메달을 땀다. /연합뉴스



독일 레버쿠젠으로 임대된 류승우(오른쪽)와 손흥민이 트레이닝 룸에서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독일 레버쿠젠 홈페이지>

코리안 듀오 활약 기대된다

독일 레버쿠젠 한솔밭 손흥민-류승우 컷 대면

독일 프로축구 레버쿠젠으로 임대된 류승우(20)가 앞으로 한솔밭을 먹을 ‘손세이셔널’ 손흥민(21)과 대면했다. 18일(현지시간) 레버쿠젠 구단은 홈페이지에 트레이닝룸에서 함께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한 류승우와 손흥민의 사진을 올렸다. 레버쿠젠은 함께 올린 ‘레버쿠젠의 새 얼굴’이라는 글에서 “류승우가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고 내년 1월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전지훈련에 합류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손흥민과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구단은 “류승우와 같은 국적 선수인 손흥민은 언어와 팀내 화합 등의 문제에서 류승우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월 터키에서의 2013 국제 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2골을 넣어 한국의 8강 진출을 이끌며 이름을 날렸지만 이후 부상으로 나머지 게임에

결장했다는 등 류승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류승우는 독일 일간지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레버쿠젠에 오게 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한국에서 독일어를 배웠으며 1월 포르투갈 전지훈련에서부터 모험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흥민이 형은 내가 레버쿠젠에 온 아주 중요한 이유”라며 “팀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해줬고, (나를) 많이 도와줄 것”이라면서 손흥민과의 생활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빌트는 손흥민이 레버쿠젠의 브레멘 원정에 합류했다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류승우는 U-20 대회가 끝나고 독일·스페인 구단 등의 러브콜을 받았으나 K리그를 먼저 경험하겠다고 고사했다가 프로축구 제주 유니버시티에 입단한 후 레버쿠젠으로 1년간 임대됐다. 레버쿠젠 구단은 임대기간 종료 후 류승우와 완전 이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옵션을 보유했다고도 밝혔다. /연합뉴스

축구선수들 이웃돕기 ‘의기투합’

홍명보 장학재단, 29일 자선 풋살 경기

연말을 맞아 소아암을 앓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한가득 안겨주려고 국내외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이 의기투합한다. 홍명보 장학재단은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오후 2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세어 더 드림 풋볼 매치 2013’ 자선 풋살 경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한국 축구의 근간인 K리그를 빛내는 ‘K리그 올스타(희망팀)’와 해외에서 맹활약 중인 ‘해외리그 올스타(사랑팀)’의 대결로 치러진다. 참가 선수 면면을 살펴보면 지난 6월 열린 K리그 올스타전 못지않다.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유럽 빅리그 헤트 트릭을 작성하는 등 최근 주가를 높이고 있는 손흥민(레버쿠젠)과 홍정호(아우쿠스부르크), 구자철(볼크스부르크) 등 독일 분데스리가들이 사랑팀의 주축이다.

2013시즌 K리그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고공격격자’ 김신욱(울산)은 희망팀에 소속돼 단짝 손흥민과 골잡이 맞대결을 펼친다. ‘인민루니’ 정대세(수원)와 이명주(포항), 윤일록·하대성(이상 서울) 등도 K리그 대표로 나선다. 여기에 대표팀의 홍명보 감독과 박건하·김봉수 코치가 사랑팀, 김태영 코치가 희망팀 유니폼을 입고 후배들과 호흡을 맞춘다. 잉글랜드 첼시 레이디스 진출을 코앞에 둔 여자축구의 ‘미세시’ 지소연(아이나 고베)과 여민지(스포츠토토), 개그맨 서경석도 ‘깜짝’ 출전한다. 이번 행사 수익금은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료 기금으로 쓰인다. 재단은 입장권 외에 경기 당일 손목 밴드 모양의 ‘드림밴드’를 판매해 마스크도 기부할 예정이다. 홍 감독은 “참가 선수들이 이번 경기를 위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와 광양제철소는 19일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에 ‘감사나눔 희망골’을 통해 적정한 사랑의 쌀 4200kg을 전달했다. 전남과 광양제철소는 올 시즌 홈경기 1골당 쌀 200kg을 적립했다. 왼쪽부터 고석범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문승표 복지재단 이사장, 박세연 전남 드래곤즈 사장.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해 많은 준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펼쳐질 것이다. 부상 선수가 나오지는 않

을까 걱정될 정도”라며 화끈한 판관을 예고했다. /연합뉴스